

美 2월 고용지표 내용과 뉴욕 금융시장 반응

1. 고용 지표

□ '15.2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Nonfarm Payroll)는 전월대비 29.5만명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23.5만명)를 큰 폭 상회

○ 민간부문 취업자수가 28.8만명(예상치 +22.5만명) 증가하였으며, 정부부문 취업자수도 0.7만명 증가

- 업종별로는 주요업종 모두 전월대비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건설업 및 제조업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서비스 업종의 증가폭은 전월대비 확대

*임시직은 2개월 연속 감소

○ 반면 직전 2개월치('14.12~'15.1월중) 취업자수는 1.8만명 하향조정

▪ 민간부문은 3.1만명 하향조정

- 12월: 0.1만명 하향(+32.0만명 → +31.9만명), 1월: 3.0만명 하향(+26.7만명 → +23.7만명)

▪ 정부부문은 1.3만명 상향조정

- 12월: 0.1만명 상향(+0.9만명 → +1.0만명), 1월: 1.2만명 상향(-1.0만명 → +0.2만명)

□ 실업률(1월 5.7% → 2월 5.5%)과 경제활동참가율(62.9% → 62.8%)도 전월대비 각각 0.2%p 및 0.1%p 하락

○ U-6 실업률(비자발적 파트타임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도 0.3%p 하락(11.3% → 11.0%)

□ 주당 평균노동시간(34.6시간)은 4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시간당 평균임금(24.75 → 24.78달러, 전월비 +0.1%)은 시장예상치(+0.2%)를 소폭 하회



非농업 취업자수 주요 부문별 증감 (단위: 천명)

	'14.2월	'14.12월	'15.1월	2월
■ 非농업 전체	188	329	239	295
- 민간 부문	175	319	237	288
(건설)	26	44	49	29
(제조)	20	19	21	8
(판매)	-10.6	14.1	41.8	43.7
(운송·창고)	-3.7	38.4	1	18.5
(교육·의료서비스)	30	54	46	54
(여가·호텔·식당)	32	56	39	66
(임시직)	16.9	21	-13.8	-7.8
- 정부 부문	13	10	2	7

2. 금융시장 반응

(시장 동향)

□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폭은 예상치에 다소 못 미쳤으나 헤드라인 취업자수 및 실업률* 개선폭이 예상치를 큰 폭 상회함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가 확대되면서 금리는 큰 폭 상승, 주가는 하락하였고 **미달러화는 강세**

* FOMC의 자연실업률 전망중심구간(5.2~5.5%) 상단인 5.5%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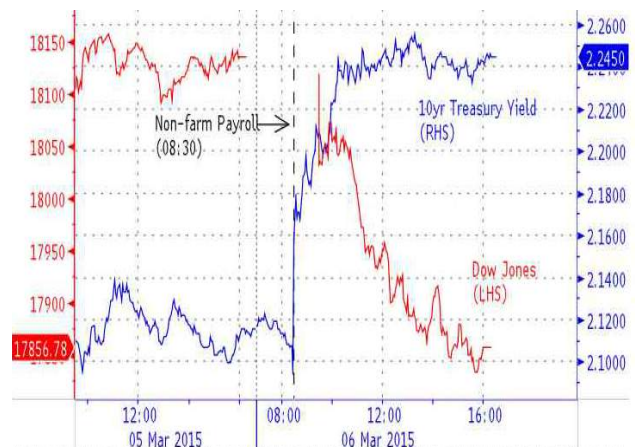
- **미국채(10년물) 금리**는 고용지표 발표 직후 큰 폭의 갭(6bp) 상승 이후에도 상승폭을 추가 확대하여 13bp 상승 마감
 - 지표 발표 직후에는 만기별 상승폭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점차 5년 이상 만기 구간에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중장기 금리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주가(다우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확대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로 장중 내내 매도우위를 보이며 큰 폭 하락
- **미달러 환율**은 주요 통화대비 강세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유로화에 대해서는 최근 추가 QE를 발표한 ECB와의 통화정책기조 차이가 더 크게 부각됨에 따라 큰 폭의 강세를 기록
 - 안전자산통화인 엔화에 대한 강세폭은 주가가 큰 폭 하락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모습
- **금가격 및 유가**는 미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각각 큰 폭 하락

주요 금융지표 동향

		'14년말	'15.2말	3.5	3.6 ¹⁾	전일 대비
미국채	2년물	0.66	0.62	0.64	0.72	8bp
	10년물	2.17	1.99	2.12	2.25	13bp
주가	다우	17,983	18,133	18,136	17,857	-1.5%
	S&P 500	2,080	2,105	2,101	2,071	-1.4%
환율(\$/€)		1.2104	1.1196	1.1030	1.0844	-1.7%
금(\$/온스당)		1,182	1,213	1,198	1,166	-2.7%
WTI US/bbl		53.3	49.8	50.8	49.6	-2.2%

주: 1) 뉴욕 16:30분 기준

미 국채금리 및 주가지수 일중변동 추이



(월가의 평가)

□ 2월중의 한파 및 폭설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실업률도 하락하는 등 날씨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점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고용지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음

○ 이에 따라 3월 FOMC회의 정책결정문에서의 “patient” 삭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나 다만 주요 투자은행들의 경우 즉각적으로 금리인상시기 전망을 변경하는 등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음

■ 6월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노동시장의 견조한 개선 모멘텀에 큰 의미를 부여한 반면, 9월 이후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연준이 당분간 임금 및 인플레이션 상승의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예상

(JP Morgan) 이번 고용지표 호조로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3월 정책결정문에서의 “patient” 삭제는 거의 확실해진 것으로 판단. 또한 실업률이 FOMC의 자연실업률 전망중심구간 상단에 도달함에 따라 FOMC가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 합리적 신뢰(reasonable confidence)를 갖게 될 것임. 한편 전일 Williams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발언*은 연준 mainstream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번 임금 상승폭 둔화도 금리인상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임

* 임금은 경기사이클에 후행하므로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해서는 slack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함

(Goldman Sachs) 건설, 레저 등 기후민감업종 취업자수가 견조한 증가를 보이는 등 날씨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고용지표가 호조를 나타냄에 따라 3월 FOMC회의에서 “patient”를 삭제하고 6월 금리인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정도의 표현을 추가하여 forward guidance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9월 금리인상 전망은 그대로 유지

(Barclays) 임금 상승이 둔화되었지만 연준의 guidance는 (실제 임금 상승폭 확대 여부보다는) 노동시장 개선세가 향후 임금 및 서비스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임금 상승이 연준 정책긴축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고용지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인 만큼 3월 FOMC회의에서 forward guidance를 삭제하여 6월 이후 언제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

(Morgan Stanley) 취업자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지만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이 기대에 못미쳐 전체적으로는 혼조 수준의 지표(mixed report)였음. 시장에서 기대하였던 날씨의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고용 서베이 시기와 한파 도래 시점간의 차이*에 기인함

* 2월 BLS 서베이 종료시점이었던 2.14일까지는 미국내 대부분 지역의 날씨가 평년대비 온화하였던 반면 한파 및 폭설은 월 후반에 집중

(UBS) 취업자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당 노동시간 및 구직건수 등을 감안할 때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견조하므로 노동시장 개선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고용지표 호조로 연준이 통화정책 긴축 수순을 밟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6월 금리인상 전망을 그대로 유지

(BoA Merrill Lynch) 고용이 매우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경제활동지표가 부진하고 향후 GDP 전망이 밝지 못한 데다 인플레이션 상승 기미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연준이 신중함을 유지할 것임. 즉 3월 FOMC회의에서 “patient”를 삭제하겠지만 인플레이션 반등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9월 금리인상 전망은 유지